

파니움 - 제20호

다니엘서 11장의 전개와 2025년의 경고

Jeff Pippenger

2026-03-02

10절에서 16절을 성취한 역사의 선구자적 적용은, 이상을 확립한 로마가 파니움 전투와 같은 해인 기원전 200년에 도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는 2025년에 트럼프와 교황 레오의 취임과 함께 로마가 도래하여 그 이상을 확립하였다고 제시한다. 2025년은 교황과 대통령이 같은 해에 취임한 유일한 때이다. 2025년에, 보려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짐승과 그 우상이 높이 들려졌다. 나는 선구자들과 달리, 처음에 그 절들을 성취하였던 역사 대신 절들의 순서를 적용하고 있다. 나는 그 역사에 동의하지만, 역사의 틀을 규정하기 위하여 역사를 사용하여 절들의 틀을 정하는 대신, 절들 속의 순서를 역사의 틀로 삼고 있다. 나는 이 두 접근이 모두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마카베오 혁명

나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카베오의 선을 적용한다. 기원전 167년의 마카베오 반란은 기원전 200년 파니움 전투보다 훨씬 뒤이며,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정복하기 훨씬 이전이다. 그 선은 기원전 63년에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정복한 일을 다루는 16절에서 시작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통치하던 티베리아스 카이사르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십자가와 티베리아스는 11장 22절에 표상되어 있다.

또 홍수 같은 군세로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꺾이리니, 정녕 언약의 군주도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2.

16절의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의 예루살렘 정복과 22절의 서기 31년 십자가는, 일요일 법령의 상징에서 시작하여 일요일 법령의 상징으로 끝나는 하나의 예언적 선을 나타낸다. 23절은 단락의 구분이므로, 16절에서 시작된 그 예언적 선이 22절에서 끝남을 가리킨다. 22절에서 그 선이 뚜렷하게 종결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22절이 16절에서 제시된 동일한 이정표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결합되어, 16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뚜렷한 예언적 선을 이룬다는 점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의 증거를 제공한다.

여기에 15절과 16절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로마 권세로의 전환을 표지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면, 15절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16절의 로마로 이어지는 데서 연속성의 단절이 보이며, 16절에서 22절에 이르는 선은 분명히 단일한 예언적 선으로 독립되어 있다. 16절은 유대를 지배할 다음 권세를 도입함으로써, 2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언사의 전환을 표시한다. 그 선은 일요일 법령의 상징으로 시작하여 그 상징으로 끝나며, 그 종결점은 11장 22절이다.

스미스와 세 명의 카이사르

십육절이 이십이절과 마찬가지로 일요일 준수령을 표상한다는 사실은, 두 절을 서로 겹쳐 배치하여 상응시키도록 요구한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이십삼절을 주석하면서, 그것이 이십이절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역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절들의 역사 속에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시작된 역사를 표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3절. 그와 더불어 동맹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로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 적은 백성으로 강성하게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와 동맹이 맺어지는 바의 '그'는 14절부터 예언의 주제가 되어 온 바로 그 권세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의 권세임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을 차례로 통치한 세 인물, 곧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에게서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로 말미암아 논란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 첫째는 승리하여 자기 땅의 요새로 돌아오다가 비틀거리 넘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19절. 둘째는 조세를 부과하는 자였고, 왕국의 영광 가운데 군림하였으며, 분노 중에도 전쟁 중에도 아니라 자기 침상에서 평안히 죽었다. 20절. 셋째는 기만자요, 가장 비열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평온히 왕국을 차지하였으나, 그의 통치도 생애도 폭력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에 언약의 군주,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21, 22절.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꺾이거나 죽임을 당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정권이나 다른 어떤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의 성취를 찾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들을 안티오쿠스에게 적용하려 하며, 유대 대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언약의 군주로 만들고자 하지만, 그들이 결코 그렇게 불린 바는 없다. 이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의 통치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려는 것과 같은 유형의 논증이며, 같은 목적, 곧 재림 교리가 성경의 교리이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 앞에서 계심을 보여 주는 위대한 증거의 사슬을 끊어 버리려는 목적을 위해 제시된다. 그러나 그 증거는 전복될 수 없고, 그 사슬은 끊어질 수 없다.

"제국의 세속적 사건들을 따라 우리를 칠십 이레의 끝까지 이끈 후에, 선지자는 23절에서 우리를 다시 로마인들이 주전 161년에 유대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관련을 맺게 되었던 때로 되돌려 놓는다.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일직선의 사건의 흐름을 따라 교회의 최종적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인도된다. 유대인들은 시리아 왕들에게 심히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로마인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우호와 동맹의 조약을 맺기' 위하여 로마에 사절단을 보냈다. 1 Mac.8; Prideaux, II, 234; Josephus's Antiquities, book 12, chap.10, sec.6.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었고,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된 칙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다:—"

'유대 민족과의 원조와 우의의 동맹에 관한 원로원 결의. 로마에 복속된 자 누구든지 유대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며, 그렇게 하는 자들을 곡물이나 선박이나 금전을 보내어 돕는 것도 금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이 가해질 경우, 로마인들은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 그들을 원조할 것이며, 다시 로마인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원조할 것이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 원조 동맹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어내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로마인들의 합의로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추가되는 모든 것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결의는,'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민족의 대제사장이 유대였고 그의 형제 시몬이 군대의 장군이었을 때, 요한의 아들 에우플레무스와 엘레아제르의 아들 야손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맺은 첫 번째 동맹이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로마인들은 미약한 민족이었고, 기만적으로, 곧 그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간교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꾸준하면서도 급속한 상승을 거듭하여, 훗날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권세의 정점에까지 올라섰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70, 271.

22절의 십자가는 그 선의 시작에도 있는 상징으로 그 선을 끝맺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절은 그 십자가에 앞선 역사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대략 파니움 이후 3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약 100년 전의 시점이다. 여기서 스미스가 기원전 161년으로 비정한 유대인들과의 동맹이라는 이정표는, 다른 선구자들은 기원전 158년으로 비정한다. 내가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날짜 자체라기보다, 16절에서 22절이 하나의 예언적 역사선으로서 그 선의 알파와 오메가는 일요일 법령이라는 점이다. 그런 다음 16절부터 22절까지의 선이 제시되면, 23절은 16-22절의 선 안에 있는 역사를 반복하고 확대한다. 23절이 제시하는 예언적 역사선은 마카베오의 역사이며, 마카베오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와 완벽한 평행을 이룬다.

두 왕조

마카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치세 동안 시작된 셀레우코스 왕국에 대한 반란을 지칭한다. 그 반란은 북방 셀레우코스 왕국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며, 그 승리는 결국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어지는 시대 속에서 존재하게 될 두 유대 왕조 가운데 하나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첫 번째 왕조는 하스몬 왕조였고, 두 번째는 헤롯 왕조였다. 헤롯 왕조는 북방 셀레우코스 왕국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등장한 두 번째 유대 정권이었다. 이 정권은 로마 체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 앞선 하스몬 왕조는 본질적으로 유대적이었다. 하스몬 왕조는 기원전 141년에 시작되었고, 기원전 37년에 헤롯 왕조가 시작되어 서기 70년까지 지속되었다.

왕조들은 고대의 문자 그대로의 영화로운 땅인 유대의 정권을 표상한다. 마카비 반란은 기원전 167년부터 160년까지였다.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 가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모독한 뒤 그것을 정화하고 재봉헌하였다. 그러나 북방의 셀레우코스 세력이 완전히 격파되고 하스모네안 왕조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41년에 이르러서야였다.

헤롯 왕조는 이 선의 핵심 열쇠이다. 예수의 탄생 때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한 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는 그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헤롯 대왕은 아버지였고 유대의 왕이었으나, 그의 아들은 분봉왕에 불과했으니, 곧 나라의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이라기보다 총독과 같은 지위였다. 그러므로 그는 권한이 부족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빌라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의 탄생은 그분의 예언적 선에서 예언적 "끝의 때"였고, 그분의 죽으심은 일요일 법령을 표상한다. 첫 번째 헤롯은 1989년을 표상하고, 마지막 헤롯은 일요일 법령이다. 아버지 헤롯에서 아들 헤롯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언적 선이다.

마카비 가문은 그리스적 풍습과 문화, 더 나아가 그리스 종교까지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던 북방의 왕에 대항한 승리의 반란으로 시작한다. 하스몬 왕조의 시작은 1798년을 표상하였다. 왜 그러한가, 하고 물을 수 있다. 만일 한 왕조가 예언적 '끝의 때'에 시작한다면—그리스도의 탄생 때의 헤롯 왕조가 그러했듯—다른 왕조도 예언적 필연성상 동일한 시작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끝의 때'로 적용할 때, 두 왕조는 모두 끝의 때에서 시작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끝의 때와 관련된 봉함이 풀린 빛을 결코 보지 못한다.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였다면, 그들의 상고는 때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결실을 맺었을 것이며, 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방식에 관하여서도 참된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그의 초림에 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니엘의 증언이 있었고,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의 오심에 관한 증거를 찾고자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 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눈이 멀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곧 1897년에, 많은 이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시험하는 기별들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별들이 아직도 장래의 것임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탐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기별들의 진리들을 한데 모이지만, 그것들에게 예언적 역사 속에서 마땅한 위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그 기별들의 위치를 정하는 일에 관하여 백성을 오도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종말의 때도, 또한 그 기별들을 언제 위치시켜야 하는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날은 은밀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고등교육'을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나 세상 끝의 징조를 알지 못한다. Paulson Collection, 423, 424.

그리스도의 탄생을 '종말의 때'로 규정하고, 따라서 마카베오의 계열을 말세의 현진리 맥락으로 도입하는 열쇠로 삼는 것은 그 본문의 정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일이며, 이는 또한 그 적용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카베오의 선은 영적 영화로운 땅을 도해하며, 그 도해는 영화로운 땅의 시민들이 북방 왕의 정치적·종교적 지배에서 이탈하는 시기에서 시작된다. 하스모네 왕조로 이어진 마카베오의 반란은 1776년을 대표하고, 마카베오들이 성취한 북방 왕에 대한 반란은 혁명전쟁을 표상하였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은 1798년 종말의 때에 하스모네 왕조로 이르게 한 마카베오 반란을 대표하며, 이는 1989년 종말의 때에 헤롯 왕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헤롯 왕조는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괴까지 계속되었다.

이 역사선에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 선은 현대의 영화로운 땅을 예표하는 고대의 영화로운 땅에 대한 예증이다. 둘째, 이 선은 로마가 처음으로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는 16절에서 시작하는 역사선 안에서 시작되며, 이로써 그 선의 주된 주제가 규정된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선은 영화로운 땅을 표상하며, 그 문맥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이다. 이 선은 또한 양 왕조의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표상한다. 사두개파는 수적으로 적었으나 두 왕조 시대 모두에서 유대인의 종교 및 정치 체제를 대체로 장악하였다. 종교 체제는 제사장단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 제사장단 역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 하스몬 왕조와 헤로데 왕조의 정부는 모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두 왕조는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정부를 표상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노예제 문제에 대한 입장으로 구별되는 두 정치적 성향의 당파를 대표한다. 민주당은 친노예제이고 공화당은 반노예제이며, 이 둘은 함께 미합중국의 입헌 정부의 정치 기구와 상호작용한다. 그 정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외적 역사는 그 공화주의의 뿔로 표상되고, 내적 역사는 그 개신교의 뿔로 표상된다. 그 뿔들은 짐승 위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그 짐승이 국가의 뿔을 교회의 뿔과 분리하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함께 지나간다. 공화주의의 뿔은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두 가지 영향력을 지니고, 개신교의 뿔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지하거나 태양의 첫째 날을 지지하는 두 가지 영향력을 지닌다.

파니움 전투로부터 대략 삼십 년이 지난 뒤, 마카베오는 미합중국의 역사를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규정한다. 그로부터 대략 한 세기 후,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 16절이 성취되며, 이는 십자가를 예표한다. 유대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굴복시키는 세 가지 장애물 가운데 둘째이다. 폼페이 장군은 기원전 65년에 시리아를, 이어 기원전 63년에 유다를 정복하였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세 번째 장애물을 정복하였다. 이 역사는 16절에서 22절에 이르는 구절의 흐름 속에 제시되어 있다.

십자가의 사건 무렵에는 마카비의 역사가 거의 이백 년 동안 전개되어 있었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23절에서 유대인들과의 동맹으로 표상된 역사가 22절의 십자가의 역사보다 거의 이백 년 앞서 일어난 역사적 기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절의 십자가의 역사는 16절과 대응되어야 하는데, 16절 또한 일요일 법령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다의 영화로운 땅의 역사인 마카비의 역사선이 16절의 일요일 법령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가 14만 4천의 역사를 예증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밀러주의자들의 '끝의 때'인 1798년을 14만 4천의 '끝의 때'인 1989년과 대응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를 셋째 천사의 역사와 중첩시키는 것이다. 1798년과 1989년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역사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이정표이다.

40절은 '끝의 때'에서 시작되며, 이는 용이하게 1798년임이 입증된다. 그리고 정확히 이해될 때, 1989년 소련의 붕괴가 40절을 성취하였고, 그 성취 또한 '끝의 때'였다. 마카베오 계열이 서술된 바로 그 장에서, 한 절 안에 두 차례의 '끝의 때'가 있다. 하스모네 왕조로 이어진 마카베오 반란은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을 표상한다. 1798년에 하스모네 왕조가 시작되었고, 1989년에 헤로데 왕조가 시작되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은 1989년을 가리키며, 16절은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그 구절들 안에 놓인 역사적 전개는 세 차례의 전투와 남방 왕의 몰락, 그리고 로마가 예언적 역사 속으로 진입하는 일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그 짐승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형화하는 두 왕조의 계열을 포함한다. 순차적으로 첫째 유대 왕조는 어린 양을, 둘째 로마 왕조는 용을 표상한다. 첫 번째 왕조는 유대 왕조였고, 두 번째는 로마 왕조였다. 유대이든 로마이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을 지니고 있었다.

유대 왕조는 개신교의 뿔을, 로마 왕조는 공화당의 뿔을 대표한다. 양쪽 뿔은 또한 예언적 이분을 지니고 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노예제 찬성의 민주당과 노예제 반대의 공화당이라는 대비 구도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대조되는 미련한 처녀들의 이중 분할을 대표한다. 미련한 처녀들로서의 바리새인은 첫 번째 실망에서 제거되고, 사두개인은 두 번째 성전 정결에서 제거된다. 바리새인은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 먼저 제거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한밤중의 외침의 능력과 기별을 부인한 사두개인이 제거된다. 사두개인은 지나쳐 버림을 받는 언약 백성이며, 사두개인은 좋은 감정의 느낌에 만족하는 자들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랑의 오심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분의 임박한 오심이 선포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일어난 개혁은, 처녀들이 나아감에 상응하였다.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제시된다. 모든 이가 각자의 등불, 곧 성경을 들고, 그 빛을 따라 신랑을 찾으러 나아갔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그들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후자의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능력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이요 그들의 길에 빛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마음과 생애의 정결을 간절히 구하였다. 이들은 개인적 체험,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망과 지체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그들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들은 충동에 의해 움직였다. 그 엄숙한 기별로 말미암아 그들의 두려움이 자극되었으나, 진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나 마음속 은혜의 진정한 역사가 없이,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하고 선한 감정의 감박이는 빛에 만족하였다. 이들은 즉각적인 상급의 전망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주를 찾으러 나아갔으나, 지체와 실망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시련이 임하자 그들의 믿음은 꺾였고, 그들의 등불은 희미해졌다. 대쟁투, 393쪽.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양 부류 모두가 자정의 위기에서 지체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연합한다. 이에 우리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내가 구절들의 흐름 속에서의 배치에 근거하여 14절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 구절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연대기와는 상반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나는 그 논리를 23절의 배치와도 일치하도록 사용한다. 이정표의 배치는 그 역사적 성취와 상응해야 한다. 마카베오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와 맺은 동맹이 그 구절이 적용될 위치를 규정하였다. 환상을 확립하는 자들로서 14절의 '강도들'은 기원전 200년에 환상을 확립하였는데, 그 해는 바로 파니움 전투가 있었던 해였다. 그러나 그 전투와 그 강도들은 서로 다른 두 상징이다.

'강도들'은 서사의 일부가 되며, 그것은 파니움 전투의 날짜와 직접적인 연결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안티오쿠스에게 곧 패배할 처지에 있던 취약한 다섯 살 이집트 통치자와 그들이 맺은 관계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의 이집트산 밀 수입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로마가 그 취약한 다섯 살 이집트 왕과 맺는 예언적 관계가 그 절의 주제이다. 그 개입은 1989년 이전과 같이 우크라이나 교회를 러시아 교회에 종속시키려는 푸틴의 시도에 뒤이어 일어나는 여파의 후과를 지목하고 있다. 그 시도는 그의 남방 왕국의 점진적 쇠망을 촉발하며, 프톨레미처럼 푸틴이 죽거나, 웃시야와 나폴레옹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유배될 때, 그는 예언적으로 제거되고 그의 왕국은 이후 더 무능한 일련의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런 다음 그 다섯 살 왕의 시대에, 교황권 로마가 자기 이해관계, 곧 우크라이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다.

교황권은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 이사야서 4장에 표상된 바와 같이, 모든 종교 단체를 그 권위 하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모든 진영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날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아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치욕을 제하여 주소서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한 자들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우리라.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로 기록된 모든 자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4:1-3.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일곱 여인으로 표상된 모든 종교 단체들을 교황권이 장악한다. 그 일곱 교회는 자신들이 '가톨릭', 곧 '보편적'이라 불리기를 원하며, 자기들의 의복을 입으려 하므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기들의 인간적 의복을 입고자 하는 모든 종교 단체들의 연합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그때에 이루어지는데, 곧 그때는 주의 가지가 라오디게아 백성에서 빌라델비아 백성으로 변모하는 때이며, 또한 교황권이 정치 단체들의 수장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시기에 모든 종교 단체들의 수장이 되는 때이다.

1989년에 우크라이나 교회는 북방의 왕이 소련을 휩쓸어 없애는 것을 상징하였다. 푸틴은 이전의 복종 관계를 회복하려 할 것이며, 이마에 나병이 생겨 그의 요구를 거부한 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할 것이다. 그 박해는 프톨레마이오스 자신의 나라,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일어났으므로, 로마의 영향을 받는 러시아 내 교회들이 푸틴의 표적이 되며, 또한 그의 종말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파니움 전투를 준비함에 따라, 약화된 이집트의 어린 왕의 보호자와 맺은 그의 공공연한 관계가 2025년에 밝혀진다. 기원전 200년에 이집트의 어린 왕을 보호하던 로마 권세는 그때에는 그 어린 왕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는 그 어린 왕의 종말을 돕게 될 것이다. 기원전 200년에 이집트의 보호자였던 로마는 파니움 전투에서 이집트의 파괴자로서의 로마를 상징한다.

밀러파

밀러파는 세 로마 권세를 보지 못하고 오직 둘만 보았으나, 그들의 진리는 변함없이 진리였다. 안티오쿠스를 상징으로 하는 예언적 논리는, 비록 이 구절들을 최초로 성취한 역사가 14절과 15절을 모두 기원전 200년에 두었음지라도, 15절에 앞선 역사에 14절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나는 16절이 임박한 일요일 법령이며, 14절은 2025년이었고, 15절은 아직 장래에 있을 파니움 전투라고 주장한다. 안티오코스는 그가 세 전투 모두에 등장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 세 전투가 하나의 예언적 선상임을 증명하며, 또한 '줄 위에 줄'의 방법론으로 올바르게 구분될 때 이 구절들의 말세적 적용이 타당하다는 나의 주장도 입증한다.

안티오코스는 세 차례의 전투 모두에 있었으며, 말세에 그는 1989년(레이건과 미국), 2014년(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교황권의 대리 세력을 표상하고, 이어 파니움 전투에서는 1989년과 동일한 대리 세력이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시작으로 끝을 표상하시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미 사망하여 매장되었으므로, 안티오코스의 역사적 증거는 밀러주의적 이해에 정확히 부합하되, 선상에 선을 더하는 적용을 규율하는 규칙들에 종속된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가 세 전투 모두에 있었지만, 그 절들에서 마지막 교황권의 대리 세력은 트럼프이다. 13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두 번째 선거에서 패배해야 했으니, 13절에서 그는 '돌아오며' 이전 어느 때보다 강력하여 귀를 관통하는 총탄을 맞고도 건널 만큼이다. 그리고 그 귀는 제사장들이 기름부음을 받을 때 피로 도유되던 부위로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함께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레이건은 트럼프를 예표하였다. 이는 레이건이 1989년 끝의 때로부터 마지막 여덟 대통령 가운데 첫째이기 때문이다. 또한 링컨은 트럼프를 예표하였으니, 그는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이었다. 링컨은 로마와 동맹한 노예제 옹호파 민주당원들에게 암살되었고, 로널드 레이건과 그의 교황파 상응자인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두 암살 기도에서 생존하였다. 트럼프는 2020년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성취한 탈취된 선거로 인해 정치적으로 암살당하였고, 이어 2024년에 11절의 성취로 부활하였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요한계시록 11:7, 11.

트럼프의 부활은 제13절에서 말하는 그의 '귀환'이었으며, 또한 로마의 한 특성과 상응을 이루었다. 이는 로마가 '일곱에 속한 여덟째'이고 트럼프가 로마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도 여덟째이며 일곱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7:11.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그를 레이건 이래 여덟 번째 대통령으로 만든다. 또한 그가 여섯째였으므로, 트럼프는 교황권과 귀를 같이하여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자"이다. 숫자 여덟은 부활의 상징이며, 이는 그가 교황권의 형상으로서 "귀환"하기 위해서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받아야 했음을 강조한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는데, 그 치명상이 나았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놀랍게 여겨 따랐다. 요한계시록 13:3.

치명상이 치유될 때 온 세상은 "그 짐승을 이상히 여겨 따르고", 2024년에 트럼프가 일곱에 속한 여덟째로서 부활하였을 때 그는 "다시 돌아왔고" 온 세상은 그를 이상히

여겨 따랐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보았더라. 요한계시록 11:11, 12.

트럼프는 2024년 선거에서 '복귀'하였고, 이어 2025년에 그와 교황 레오가 모두 취임하였다. 예수께서는 보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나 직접적이고 공정한 경고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15.

마가는 아마도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마땅치 아니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마가복음 13:14

멸망의 가증한 것은 로마이며, 그것은 세 가지 국면 각각에서 드러난다. 이교 로마, 교황 로마, 현대 로마는 각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경고의 상징이다. 그 경고는 로마가 "거룩한 곳"에 있거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을 때 식별되어야 한다. 영화로운 땅은 성경에서의 거룩한 땅이며, 미합중국은 영적 영화로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 곧 그의 분깃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모든 육체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음이라. 스가랴 2:12, 13.

거룩한 곳에 로마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주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그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다.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비밀 동맹을 주선한 여덟 명의 대통령들 가운데 첫째였던 레이건의 그 행위는, 1989년 종말의 때 이래의 여덟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에 의한 로마와의 공개 동맹을 표상하였다. 오메가 상징은 흔히 알파 상징의 속성을 역전시킨다.

2025년 교황 레오의 즉위와 트럼프의 취임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이의 공개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의 비밀 동맹이 예표하였던 트럼프와 레오의 공개적 동맹으로의 전환은 기원전 200년에 14절을 성취한 애굽의 소년왕에 대한 지지가 말세에는 지지의 부재를 표상함을 시사한다.

2025년은 외적 근간이 되는 이상 또는 예언을 확립한다. 이는 다니엘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상징으로 식별한 바 있는 로마를, 경고의 표징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경고는 '황폐'가 표상하는 파괴에 앞서 일어난다. 케스티우스 휘하의 예루살렘 포위전에서, 성소의 거룩한 경내 안에 로마의 권위를 나타내는 군기들이 세워진 것이 그 경고를 표상하였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여 성을 떠난 이들은 포위가 재개되었을 때 보호를 받았다. 그들은 로마의 경고 표징을 보았다. 버가모의 타협한 교회와 그 뒤의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앓는 것을 보았을 때 광야로 도피하였다. 그 증인들은 말세에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경고를 지목한다.

우리는 1888년이 케스티우스의 포위전에 해당하며, 일요일 법령 위기의 결말이 티투스의 포위전에 해당함을 거듭 보여 주었다. 1880년대의 블레어 일요일 법안들과 그 시기 남부 몇몇 주에서 시행된 일요일 법들은 케스티우스의 경고였으며, 동시에 엘렌 G. 화잇의 전원생활에 관한 권면에서 분기점을 표시하였다. 1880년대 이전에 그녀의 권면은 장차 우리가 전원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1880년대 이후에는 전원생활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880년대에 논의된, 교황권의 권위의 표를 옹호하던 블레어 법안이라는 경고의 표징은 9/11에서의 Patriot Act를 예표하였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그 두 역사 모두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9/11은 케스티우스가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거룩한 곳에 자신의 권세를 세우는 것에 대한 경고였다. 이는 9/11에 로마법이 영국법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의 펠로스 재판에서 적법절차 조항이 부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임박한 일요일법에서 종결될 티투스의 포위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을 의미한다. 그 포위는 한 기간을 가리킨다. 1888년은 내적 개신교 뿔의 반역을 가리키며, 9/11은 외적 공화주의 뿔의 반역을 가리킨다. 최후의 대통령도 취임하는 바로 그 해에 영화로운 땅에서의 교황 취임은 판이움 전투 직전에,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최후의 경고를 나타낸다. 판이움 전투는 곧바로 일요일법과 악티움 전투로 이어지며, 악티움 전투는 이교 로마에게 세 번째이자 최후의 장애물을 대표하였다. 그 후 이교 로마는 다니엘 11:24의 성취로서 360년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하였다. 일요일법 때 여섯째와 일곱째 왕국이 모두 로마에 의해 정복되며, 그 후 현대 로마는 상징적 한 시간, 곧 상징적 사십이 달 동안 통치한다.

십육절에서, 바로 앞서 이교 로마의 첫 장애물인 시리아를 정복한 폼페이우스가 이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첫 두 장애물을 정복하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악티움에서 세 번째 장애물을 정복한다. 현대 로마는 사십절의 성취로서, 또한 십절에 의해 예형된 바와 같이, 1989년에 먼저 남방 왕을 정복한다. 그런 다음 일요일법에서 현대 로마는 미국을 정복함으로써 두 번째 장애물을, 이어 유엔이 즉시 그들의 왕국을 교황권에 내어 주기로 동의함으로써 세 번째 장애물을 정복한다. 이교 로마는 폼페이우스를 통해 둘을, 그다음 하나를 정복하였고, 교황 로마는 1989년에 하나를 정복하였으며, 이어 십육절에서 그 다음 둘을 정복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폼페이우스의 두 번째 정복이 표시된다.

이교 로마의 경우 악티움에서의 세 번째 장애물이었든지, 혹은 538년에 고트족이 로마 시에서 축출된 것으로 표상되는 세 번째 장애물이었든지, 로마가 그 세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면 최고 권세로 통치한다.

정녕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모스 3:7.

황폐가 임하기 전에, 주께서는 다니엘서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으로 표상된 경고의 표징의 최종적 현현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경고의 표징은 2025년에 표상되고 있는 레이건의 은밀한 동맹과 대조되는 공공연한 동맹이다. 주께서는 먼저 경고를 주지

아니하시고는 징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아모스는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비밀한 계시가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관하여 매우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온 족속, 곧 너희를 대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아모스 3:1, 2.

아모스는 징벌을 받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의 마지막 세대를 향해 말한다. 이는 에스겔 8장에서 태양에게 절하던 스물다섯 사람과 상응한다. 아모스는 라오디게아 기별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산 자에 대한 심판의 때에 죄가 도말되는 동안 주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아모스의 경고는 두 집단의 연합에 근거한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하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이 없는데 숲에서 어찌 포효하겠느냐? 새끼 사자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였는데 그 굴에서 어찌 부르짖겠느냐? 새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도 없는데 새가 어찌 땅 위의 덧에 걸려들겠느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찌 땅에서 울무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성읍에 재앙이 있겠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아모스 3:3-6.

둘이 하나로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한 경고는 땅에서 새를 잡아채는 울무의 맥락 속에 설정되어 있다. 새들은 종교적 단체들을 상징하며, 교황권은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새장이다.

그가 힘있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우리가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8:2, 3.

새장 속의 새는 사로잡힌 새이며, 한 나라가 로마의 음녀와 음행할 때 그 나라는 사로잡힌 새가 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언적 새들 위로 들어 올려지는 그 새는, 그 삼중의 집이 건립된 권세로서, 그 여인의 처소, 곧 시날, 곧 바벨론에서 일요일 법령 때 확립된다. 그것은 1798년에 치명상을 받은 그 새, 곧 스가랴가 말한 바와 같이 그 광주리 위에 납 뚜껑이 놓였으나 그 후 강신술과 배도한 개신교의 새들에 의해 들어 올려진 그 새이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아가서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더라.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이르되, 이것은 나아가는 에바니라. 또 이르되,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형상이라 하더라. 보라, 한 달란트 되는 납덩이가 들어 올려졌고, 에바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가 이르되, 이것은 악이라 하고, 그 여자를 에바 한가운데에 던지며 그 입구 위에 그 납덩이를 던져 덮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었고, 그들의 날개는 황새의 날개 같았으며, 그들이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에 들어 올리더라.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이르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시날 땅에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집이 준비되면 거기 그 받침 위에 그것을 두리라 하더라. 스가랴 5:5-11.

아모스의 올무는 땅의 새를 잡는다. 이는 그것이 땅의 새가 사로잡히게 될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앞선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아모스에 따르면 그 연합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재림주의에 대한 책망이다. 성읍에서 경고의 나팔이 불릴 것이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할 것이다.

성읍에서 나팔이 불리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성읍에 재앙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아니겠느냐? 진실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6-8.

포효하시는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시고 봉인을 떼실 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025년의 공개적 동맹은 케스티우스의 포위이며, 결코 공존해서는 안 될 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는 자들의 표징이 확립된다. 로마가 프로테스탄트와 동맹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은 모순어법이니, 프로테스탄트가 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자랑거리이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이노첸티우스 3세의 원칙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원칙이다. 그리고 만일 그녀에게 권세만 있다면, 지난 여러 세기에서 그랬던 것과 다름없는 강력함으로 지금도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 존송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 로마의 도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 목적의 성취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로마는 자신의 권력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패권을 회복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 번이라도 미국에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는 원칙, 곧 종교적 준수가 세속 법률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는 원칙, 요컨대 교회와 국가의 권위가 양심을 지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만 하면, 이 나라에서 로마의 승리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개신교 세계는 로마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올무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로마는 조용히 권세를 키워 가고 있다. 그 교리들은 입법의 전당과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마는 높고 거대한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은밀한 구석구석에서는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이다. 로마는 눈에 띄지 않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때가 와서 일격을 가하게 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유리한 고지뿐이며, 그것은 이미 로마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 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또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그로 인해 비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위대한 논쟁, 581.

세상은 악과 속임과 미혹 가운데, 사망의 깊은 그늘 속에 누워 잠들어 있다—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영혼의 산고를 겪는 이가 누구인가?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그 신호가 주어질 미래로 향한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등불을 보충할 기름을 얻는 일을 지체하였고, 너무 늦게서야 그 기름이 상징하는 품성은 옮겨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며, 품성은 옮겨줄 수 없다. 누구도 다른 이를 위해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각 사람은 죄의 모든 오점에서 정결케 된 품성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Bible Echo, 1896년 5월 4일.

현재의 진리를 얻지 못하여 죽어 가는 가련한 영혼들과,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보류함으로써 그들을 죽게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광경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 천사에게 그것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의 소유 일부를 요구할 때, 그들은 예수께 나아온 그 젊은이(마태복음 19:16-22)처럼 슬퍼하며 떠나갔고, 머지않아 넘치는 채찍이 지나가 그들의 소유를 모두 쓸어 갈 것이며, 그때에는 세속의 재물을 희생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기에는 너무 늦을 것임을. 초기문집, 49.

"유다는 자신의 탄원이 헛되었음을 알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외치며 법정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살아서 볼 수 없다고 느꼈고, 절망하여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시대의 소망, 722쪽.